

고려 사원이 국가경제 지탱해

승시봉행위 학술세미나서 기여도 중점 조명

“고려시기 사원의 경제활동은 고려사회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간인의 3/10을 상회하는 승려의 수와 사원에 소속된 노비들은 국가경제에 크게 일조했다.” 고려시기 사원은 많은 농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원의 경제활동에 주목한 세미나가 열렸다.

됐지만 승려 신분의 기술자들도 상당했다”며 “고려시대에는 고급기술을 보유한 승려가 많아 부채, 모시, 붓, 농기구 등이 사원에서 제작됐으며 이런 것들은 세속사회에 다양한 보시로 다양 배풀어졌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가기구와 왕실에서도 생산은 했지만 이는 소비 측면이 더 강했으며

**구항식물 재배 · 농기구 생산
민중에 보시로 사회역할 강화
당시 스님들은 전문기술자
교역로 사찰은 국제무역도**

사원은 소비보다 생산 측면이 강해 민중에 대한 보시가 가능했다”며 “이는 세속의 보시에만 의존하는 현대 불교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기문 경북대 교수도 ‘고려시대 사원 교역의 범위와 기능’ 발제를 통해 사원 생산품들이 국제교역에도 활용됐다고 소개



팔공산 승시축제에서 당시 승시 모습을 재현하는 스님들의 모습

했다.

한 교수는 “사원은 광범한 분포와 연계망을 형성해 고려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했다”며 “국가 유통체계에서 사원이 이를 대신했으며 승려대회를 기해 전국적 중심 교역장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지방 도심에는 분원을

소유해 교역장구로 활용하기도 했으며 교통요지에 위치한 사원은 국제 중계무역 장소로서 기능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사원 교역이 사원경제를 활성화 했으며 이는 사회적 지위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전쟁으로 사라진 사찰, 사진으로

성균관대 박물관, '유리원판에 비친 문화유산'展 개최

곡성 관음사와 평양 광범사 등 전쟁이나 개발로 사라진 사찰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다.



평양 광범사 모습

용 가능하다.

평양 광범사는 북한 제1의 사찰로 역시 1952년 소실됐다. 광범사 대웅전 현판에는 ‘동국명사(東國名寺)’라고 쓰여있다.

또 문경 봉암사 불광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등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됐다.

성대박물관은 “이번 사진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이었던 후지타 료사쿠가 찍어 보관하던 사진을 해방 직후 성균관대가 인수해 보관해오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석가탑 해체 시작

9월 27일 해체수리 착수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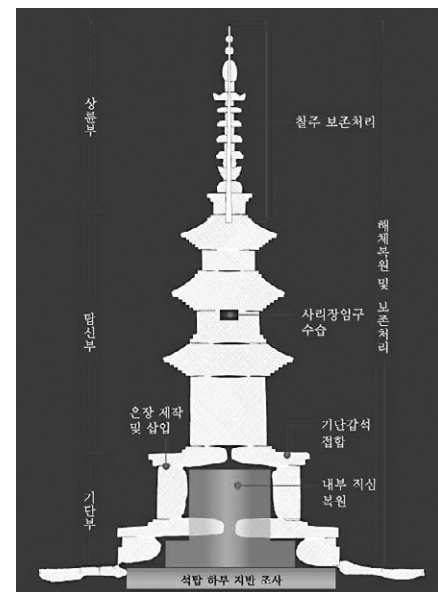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와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9월 27일 불국사에서 전문가, 관계인사와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1호·석가탑) 해체수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불의식(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과 삼층석탑 해체수리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부채 해체시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0분 간 석가탑의 꼭대기 부분인 상륜부를 해체하는 시연 작업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해체작업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초순경부터 시작된다.

삼층석탑의 해체수리는 지난 2010년 12월 정기안전점검 시 북동측 삼층기단 갑석에서 갈라진 틈(길이 1.32m, 최대폭 5mm)이 확인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2014년 완료될 예정이다. 1966년에는 도굴 미수 사건으로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한 바 있다. 해체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석탑주변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설덧집을 설치하여 일반관람객이 해체수리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석가탑 해체수리 및 조사 개념도



해체 시연에서 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부채 보수

대각사상연구원-화엄사 공동 학술세미나

10월 17일 화엄사사... '용성스님의 한글화엄경과 화엄사' 주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과 화엄사(주지 종삼)가 공동으로 10월 7일 구례 화엄사에서 ‘용성 스님의 한글화엄경과 화엄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산당(高山堂) 도광(導光) 대선사 28주기 추모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도업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화엄사상-법신불 사상’을 비롯해,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의 ‘용성스님 국역 <조선글화엄경> 연구’,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백용

성과 이운허의 번역을 중심으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현대 화엄사의 성격과 진진응·이동현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 스님의 ‘구도자, 도광스님 연구-그의 보살행과 구도 행각’ 등 5편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권단준 금강대 교수,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 김종인 경희대 연구교수, 화엄사 포교국장 우문 스님, 이재수 동국대 연구교수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석전 스님 시문학 · 글씨 문화 축전

불교학의 큰 스승이자 근대 불교교육의 선각자인 석전 박한영(1870~1948) 스님의 시문학과 글씨 유품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정각원과 백파사상연구소는 10월 8~23일 동국대에서 ‘석전 박한영 스님 축전’을 개최한다.

석전 스님은 조계종 전신인 조선불교 제1대 교정(현재 종정)으로 1932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맡아 오랫동안 인재양성에 나섰다. 청담 스님과 운허, 운기, 운성, 청우, 남곡, 서경보 스님 등이 제자다.

이번 축전은 교장 취임 80주년을 맞아

시문학과 유품을 통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자 열린다.

축전은 10월 8일 석전 스님 시문학 연구 세미나로 시작으로 문을 연다. 또 같은 날 시전에서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의 ‘석전의 한시세계’, 강상일 동국대 교수의 ‘석전의 한문학 및 한문학사론’, 고재석 동국대 교수의 ‘석전문학의 근대 문학사에서의 위상’, 홍신선 동국대 교수의 ‘석전이 현대 시인문장가에게 끼친 영향’ 등 발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는 석전 스님의 유품 전시전과 음악제, 영상상영 등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 63집 출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최근 <한국불교학> 제63집을 펴냈다.

이번호에는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용사상’을 주제로 △자현 스님의 ‘오대산 문수화엄신앙의 특수성 고찰’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탄허택성의 생애와 사상’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한암과 탄허의 동이점 고찰’ △임상희 중앙승가대 연구원의 ‘탄허택성의 화엄사상’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탄허 스님의 예지, 그 배경과 의의’ 등이 실렸다.

또 연구논문으로 이종수 박사의 ‘조선 후기 삼문수학과 선 논쟁의 전개’, 김성순 박사의 ‘경허성우의 몸과 마음’, 양오영 박사의 ‘티베트 불교에서 성불의 의미’, 현서 스님의 ‘산파라시파의 세속과 유식설’, 여현 스님의 ‘마조선에 나타난 교학사상’, 이석환 박사의 ‘불성의 본질과 중생의 관계’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재와 나’ 사진 공모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스님)은 10월 15일까지 ‘불교문화재와 함께한 사진전(展)’에 전시될 불교문화재 사진을 공모한다.

“문화재와 나”를 주제로 진행되는 사진 공모전은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주제 기획특별전(10월17일~12월9일) 개최를 맞아 불교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관람객들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된 사진은 특별전 기간 중 소규모 사진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ddhis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진은 심사를 거쳐 10월30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석전 박한영 축전

혼돈의 역사속에서 고고히 한민족의 정신과 불교를 지키며 살아오셨던 우리의 석전정호 큰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석전 박한영 축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년 10월 8일 ~ 19일
장소 동국대학교

주요 행사

- 축전 개막식 및 본행사
 - 음악제 및 홍보영상 상영
 - 10월 8일(월) 오후 2시 | 동국대학교 강당
- 석전 박한영의 시문학 강연회
 - 10월 8일(월) 오후 3시 30분 | 동국대학교 강당
 - 이종찬: 석전의 한시 세계
 - 김상일: 석전의 한문학 및 한문학사론
 - 고재석: 석전 문학의 근대문학사에서의 위상
 - 홍신선: 석전이 현대 시인 문장가에게 끼친 영향
- 석전스님 유품전 (8일 오후 1시 30분 개막)
 - 10월 8일 ~ 19일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

주최 석전 박한영 축전위원회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일문도회 · 운허기념사업회 · 광동학원 · 청담학원 · 청담문화재단 · 불교TV · 불교방송 · 법보신문 · 불교신문 · 현대불교신문